

# 보크 선언에 흔들린 멘탈... 브룩스, 따끔한 예방주사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자체연습경기에서 홈팀 선발 브룩스(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6회 3실점하며 흔들리자 서재용 투수 코치(세 번째)가 마운드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KIA 홍백전 10차전

이민우와 투수 대결 선발패  
연속안타 허용하며 4실점  
돌발 변수에 약한 모습 노출

홍백전 3경기서 방어율 1.38  
완벽했던 모습, 위기 경험하며 흔들  
리그 전략 재수립 할 좋은 계기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예방주사'를 맞았다.

KIA는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홍백전 10차전을 치렀다. 이민우와 브룩스가 각각 백팀과 홈팀의 선발로 나서 6이닝씩을 소화한 이날, 마운드 대결의 승자는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한 이민우였다.

그동안 가장 강렬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브룩스에게는 미리 경험한 '위기의 경기'였다.

브룩스는 1회말 최원준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맞았지만 김선빈을 투수 직선타로 처리한 뒤 최형우와 나지완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마감했다.

2회는 외야 플라이 세 개로 끝났고 3회도 삼자범퇴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4회 최원준에게 다시 선두타자 안타를 내주면서 브룩스의 시험 무대가 시작됐다. 김선빈을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최형우와의 승부 때 보크를 범하면서 1사 2루의 위기를 자초했다.

보크 선언에 잠시 당황한 모습을 보인 브룩스는 이어 나지완과 터커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실점을 기록했다. 장영석을 우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면서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돌발 변수에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첫 볼넷을 내준 5회를 잘 넘긴 브룩스가 6회

다시 진판을 흘렸다.

1사에서 최형우를 시작으로 이우성, 오선우에게 연속 3안타를 허용했다. 나주환과의 폭풍 승부에서는 몸에 맞는 볼도 기록했다. 또 한승택의 타구가 유격수 키를 살짝 넘어가면서 브룩스가 순식간에 3실점을 했다.

서재용 투수 코치가 잠시 마운드를 방문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은 브룩스는 2사 1·2루에서 황윤호를 상대했다. 2사였지만 번트 자세를 취한 황윤호는 타임까지 외치면서 브룩스를 흔들었다.

황윤호의 타구를 직접 잡아 추가 실점은 막았지만 브룩스에게는 가장 험난한 하루였다.

브룩스는 스프링캠프 4경기에 나와 12.2이닝을 2실점(1자책점)으로 막으며 0.7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볼넷은 3개만 허용한 반면 탈삼진은 17개를 뽑아내면서 위력을 발휘했다.

앞선 홍백전 3경기에서는 13이닝 2실점으로 1.38의 평균자책점을 남겼다. 볼넷은 3개, 탈삼진은 11개였다.

이날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브룩스에게는 위기 상황을 미리 경험해본 좋은 경험이 됐다. 특히 '보크'는 브룩스에게는 약이 됐다.

보크 선언 전 타석에서 문승훈 주심은 서재용 투수 코치에게 사인을 줬다. 브룩스가 세트 포지션에서 글러브를 쥔 상태로 움직임을 보였다.

"파악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응답한 서재용 코치는 "(보크)잡아주세요"라면서 쿨한 반응을 보였다. 열 마디 지적보다는 실전에서 한 번 직접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한 서 코치의 강경책이었다.

그리고 이어 비슷한 동작이 나오자 주심은 바로 보크를 선언했다. 브룩스는 잠시 아찔도 했지만 이후 신중하게 투구를 하면서 더 이상의 보크는 기록하지 않았다.

빅리그 출신의 브룩스지만 KBO는 새로운 도전 무대다.

낮선 환경, 세밀한 타자들을 넘고 팀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KBO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브룩스에게 15일 경기는 했지만 소중한 경험을 한 좋은 경기라 됐다.

/글·사진·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 핫 플레이어 - 투수 하준영



"마음 놓고 던질 일만 남았습니다."

2루타와 볼넷을 남겼지만 KIA 타이거즈 좌완 하준영의 표정은 밝았다.

하준영은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자체 홍백전에서 선발 이민우에 이어 백팀의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다.

첫 타자 황대인에게 좌측 2루타를 내준 하준영은 유격수 땅볼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지만 볼넷을 허용한 뒤 투구수 제한에 따라 마운드를 내려왔다.

1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성적도 좋지는 않았지만 첫 등판이라는 점에서 하준영은 좋은 점수를 줬다.

하준영은 팔꿈치 통증으로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건너뛰었고 앞선 9차례의 홍백전에도 등판하지 못했다.

하준영은 "처음 시합치고는 괜찮았던 것 같다. 캠프 초반부터 팔꿈치가 안 좋았다. 서재용 코치가 개막 미뤄질 것 같으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하였고, 트레이너 코치님이랑 신경 많이 써주셔서 지금은 괜찮다"며 "이제 마음 놓고 던질 일만 남았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신중하게 준비해온 2020시즌의 첫걸음. 벤치에서 코치는 "힘 빼고!"를 연달아 외쳤다.

하준영은 "무리할까 봐 코치님께서 아침부터 계속 말씀하셨다. 그 부분이 신경 써서 던졌는데 첫 게임이다 보니까 힘이 들어간 것 같다"며 "볼의 궤적은 괜찮았다. 밸런스 문제는 시합 하면서 괜찮아질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뷔 두 번째 시즌이었던 지난해 팀의 필승조

로 맹활약했던 하준영은 올 시즌도 KIA가 기대하는 볼펜 핵심 요원이다. 특히 좌완 가움에 시달리고 있는 KIA에는 단비 같은 존재다.

그런 만큼 완벽하게 하준영의 시즌 플랜이 가동됐고, 이날 경기를 통해서 KIA의 볼펜 조각이 새로 맞춰졌다.

마음은 급했지만 "뒀을 돌아보라"는 서 코치의 이야기가 하준영에게 큰 힘이 됐다.

하준영은 "항상 코치님이 앞만 보지 말고 차분하게 계속 뒀을 생각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괜찮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준비를 잘하러다 보니까 무리한 것 같다. 초반부터 페이스를 많이 올리려다 보니까 부상도 이어진 것 같다"며 "내년에 어떻게 할지도 배운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시련 속

에 배운 교훈을 이야기했다.

시작은 늦어졌지만 아직 개막까지는 시간이 있다. 하준영은 부담감을 털고 지금처럼 조금씩 페이스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준영은 "안 아플 때는 초반부터 잘하려고 페이스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아프다 보니까 전체 시즌을 생각하게 됐다. 초반만 생각하지 않고 후반까지 생각하게 됐다"며 "아직 개막까지 시간이 있다. 꾸준히 어느 정도 연습한 게 있어서 하다 보면 (변화구는)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가지지 않고 작년처럼 내 위치에 서 할 일만 잘하면 될 것 같다"며 "이제는 아프지 않으니까 지난해처럼 화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 팔꿈치 부상 훌훌... "마음 놓고 던질 일만 남았다"

## 아시아축구연맹 전 경기 무기한 연기

코로나 확산 따른 안전 조치... AFC "올 대회 완주할 방법 찾겠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6월 예정된 AFC 주관 대회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AFC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AFC는 5월과 6월에 치르기로 했던 모든 경기를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AFC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예방 조치를 취한 전 세계 축구연맹 가운데 하나로 5-6월 경기 무기한 연기 결정은 참가팀 선수들과 임원, 팬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5-6월에 예정된 AFC 챔피언스리그와 AFC컵 조별리그 경기는 치러지지 못하게 될

다. AFC의 동아시아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달 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코로나19의 대응행으로 3-4월에 치르기로 했던 AFC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5-6월로 미뤘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우 증가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여행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AFC는 결국 5-6월로 미룬 AFC 챔피언스리그와 AFC컵 일정마저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

AFC는 "AFC 챔피언스리그와 AFC컵에 참가하는 팀들의 축구협회와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올해 대회가 완주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샌프란시스코 슈퍼볼 패배가 수 많은 생명 구원"

美 월스트리트저널 "우승 퍼레이드 열렸다면 코로나 급속 확산"

미국프로풋볼(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49ers)의 슈퍼볼 패배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한국 시간) 올해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우승했다면 우승 퍼레이드가 이어졌을 테고, 이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두 달 전인 2월 3일 벌어진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캔자스시티 치프스에 20-31 역전패를 당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미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바로 그날 슈퍼볼 아침에 UC 샌프란시스코(UCSF)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만약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승리했다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우승 축하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좁은 인도를 가득 메웠을 것이 분명했다.

이 경우 우승 퍼레이드가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경로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감염자를 양산하고, 또 이들이 또다시 감염자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WSJ은 판단했다.

밥 워터 UCSF 의과대학 학과장은 "샌프란시스코 팬들에게는 가슴 아픈 패배였지만 덕분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페인 독감이 퍼졌던 1918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아찔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 스페인 독감이 번지는 와중에 미국 필라델피아는 9월 전쟁 공채 모집 퍼레이드를 강행했다.

20만명 이상이 퍼레이드에 참석했고, 그중에 2600명이 숨졌다. 1918~1919년 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가장 많았다.

슈퍼볼 2주 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열렸다.

당시 4만명 이상의 아탈란타 팬들이 대규모 원정 응원을 하러 갔다가 베르가모로 돌아왔다. 몇 주 뒤 베르가모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됐다.

WSJ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아직도 슈퍼볼 패배의 슬픔에 젖어 있는 샌프란시스코 팬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